

## 2024년 국제 현충일 쉬임 특별 집회 표어

우리는 자신이 통과하는 모든 일에 오직 한 가지 목적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해방되고 우리 안에서 표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속사람이 해방되고 표현될 수 있는 정도까지 우리 겉사람이 파쇄되기를 바란다.  
이것은 보배로운 것이며, 이것이 주님의 종들이 가야 할 길이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과 한 영이 되는 것이며,  
효과적인 기도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 결과이다.

우리가 생명의 흐름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유기적인 건축물인 하나님의 장엄한 집을 위해,  
생명의 사역을 가진 씨 뿌리는 이, 심는 이, 물 주는 이, 낟는 이,  
먹이는 이, 건축하는 이가 되기 위한 것이다.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2024년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국제 현충일 쉬임 특별 집회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 그리스도인의 생활

메시지 1

###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내재적인 의미

성경: 요 14:21, 23, 고후 2:10, 4:6-7

- I.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이다. 우리의 생활은 그리스도여야 하며, 그리스도를 사는 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 빌 1:19-21상, 갈 2:20.
- A. 우리는 그리스도를 극도로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살 수 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 수 없으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온 존재를 그분께 집중하는 최상의 길이다 — 고후 5:14, 요일 4:19, 빌 1:19-21상, 막 12:30, 계 2:4-5, 요 14:21, 23, 21:15-17, 벤전 1:8, 고전 2:9, 16:22.
- B.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온 존재—영과 혼과 몸, 또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막 12:30)—를 절대적으로 그분께 두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의 온 존재가 그분으로 점유되고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이 잃어버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고,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분과 하나 된다.
- C.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영은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이들까지도 꿰뚫어 보신다’(고전 2:10). ‘꿰뚫어 보다’에 대한 헬리어 단어는 적극적인 탐구와 관련하여 사용되는데, 이것은 발견해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탐구해서 얻는 정확한 지식을 뜻한다.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깊이들을 탐구하시어 우리가 깨닫고 참여하도록 영 안에서 그것을 보여 주신다.
- D.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께에서 사랑을 받고, 아들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누리며, 아버지와 아들께서 우리와 함께 상호 거처를 정하시도록 우리를 방문하시는 것을 누릴 것이다 — 요 14:21, 23.
- E.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이신 하나님 자신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생활이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는 생활을 하였고,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동일한 사랑의 생활을 하여,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죄인을 구원하는 사역 여행을 하신 그분의 존재와 똑같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요일 4:16-19, 눅 10:25-37, 19:10, 엡 4:20-21, 비교 갈 5:13-15.
- II.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곧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다 — 고후 2:10, 4:6-7.
- A.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사용된 것처럼, ‘인격’에 대한 헬리어 단어는 직역하면 ‘얼굴’이다. 이것은 눈 언저리 부분으로서, 내적인 생각과 느낌을 보여 주는 표정이 나타나는 곳이다. 이러한 표정은 사람의 인격 전체를 보여 주고 나타내는 것이다.
- B. 믿는 이들에게 본이었던 사도 바울(딤후전 1:16)은 그리스도의 눈에서 표현되는 그분의 인격 전체의 표시에 따라,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살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 C.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면, 너울이 우리의 마음에서 벗어지고, 우리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 사실상 우리의 돌아선 마음이 너울이다. 너울을 벗은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너울을 벗은 마음이다 — 고후 3:16, 18, 4:6-7, 삼상 16:7, 엡 1:18상.

- D.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으며, 그분의 얼굴 곧 그분의 인격이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는 보배이다 — 고후 4:6-7, 벧전 3:4.
- E. 우리는 가치 없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우리의 영 안에 지극히 귀한 보배를 담고 있는데, 이 보배는 그리스도 자신의 얼굴, 곧 인격이다(고후 2:10, 4:6). 온 우주 안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창 32:30, 출 25:30, 33:11, 14, 시 27:4, 8, 계 22:4).
1.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 살며 그분의 존재의 표정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만,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보배이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다만 그분께 말씀드리기만 하면 된다.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며, 얼굴을 마주하여 우리와 함께하신다 — 빌 4:6.
  2.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과 같으며, 하나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요소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 변화되는 것이다(욥 42:5-6, 마 5:8).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바로 이 하나님은 완결되신 영이시며,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풍성을 우리 존재 안으로 흡수하고 매일 신성한 변화를 받을 수 있다(고후 3:18하, 마 14:22-23, 골 4:2).
- F.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주님께 마음을 돌이켜 얼굴을 마주하여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다른 이들 안으로 비추어 넣는 동안(사 60:1, 5),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으며, 결국 우리는 ‘그분을 그분의 존재 그대로 뵈게 될 것이므로 그분과 같아질’ 날에 이를 것이다 — 고후 3:18-4:1, 요일 3:2, 계 22:4.

### III.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 엡 4:1-4.

- A.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행함의 첫째 항목은 우리가 신성한 속성들에 의해, 신성한 속성들로 강화된 변화된 인간 미덕들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인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는 것이다 — 엡 4:1-4.
1.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님의 영 안에는 예수님의 변화된 인성이 있다. 한 몸을 위해 한 영을 마시고 흘러 보내는 것은 사람 예수님의 영을 마시고 흘러 보내는 것, 즉 사랑 안에서 서로를 깊어지기 위한 겸허와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신성으로 풍성하게 된 인간 미덕들을 지닌 예수님의 인성을 마시고 흘러 보내는 것이다 — 요 7:37-39상, 고전 12:13, 행 16:7, 엡 4:2-3.
  2. 우리가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먹는다면, 우리는 사람이신 예수님을 누릴 것이고, 그분의 높아진 인성의 모든 미덕은 예수님의 영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될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인 실재의 영 안에서, 회복된 교회생활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 고전 1:2, 10:3-4, 17, 12:3하, 13, 16:13, 엡 4:3-4상.
- B.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행함의 둘째 항목은 우리가 모든 일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이다 — 엡 4:15-16.
1.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한 새 사람을 산출하기 위한 모든 것을 포함한 우주적인 대체물로서 누려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을 보아야 한다 — 막 9:7-8.
  2.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이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사람을 ‘해고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약 경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대체하셨다 — 막 1:1-8, 마 17:3-5, 골 2:16-17, 히 10:5-10, 11:5-6, 비교 사 22:20-25.
  3.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고용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두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으셨을 때, 우리를 ‘해고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하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사람들이라는 새로운 종(種), 곧 하나님의 단체적인 결과품인 하나님의 새로운 발명품으로 만드심으로써 우리를 ‘재고용하시어’, 그분의 영광 곧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원래의 의도로 우리를 되돌리셨다 — 창 1:26, 갈 2:20, 엡 2:6, 10, 15, 사 43:7.
- C.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행함의 셋째 항목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다 — 엡 4:20-24.
1.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일생의 실지 상태를 가리킨다. 예수님의 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삶이었다. 하나

- 님은 예수님의 생활 안에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셨다 — 엡 4:20-21.
2. 그분은 사복음서에 계시된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사실 때 본을 세우셨다. 그런 다음에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에 의해 그분께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활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에 의해 그분의 본을 따라 그분께 배우는 것이다 — 고전 15:45하, 골 3:4.
  3.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복음서들에 묘사된 틀, 모습, 본을 따라 자동적으로 그분을 살게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들의 형상으로 형태 지어져 이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말의 의미이다 — 마 11:29, 롬 8:29.
- D.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행함의 넷째 항목은 우리가 사랑과 빛 안에서 사는 것이다 — 엡 5:2, 8.
1. 우리는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이들 곧 신성한 본성을 누리려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벧후 1:4). 신성한 본성은 하나님의 어떠함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4:24), 사랑이시며(요일 4:8, 16), 빛이시다(1:5). 영은 하나님의 위격의 본성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이며, 빛은 하나님의 표현의 본성이다.
  2. 우리 모두는 주님과 개인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서 우리의 영 안에서 주님과 내밀하게 교통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본질로 채워짐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목양하실 수 있고, 주님의 빛나는 요소로 채워짐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된다 — 요 4:24, 눅 15:20, 마 5:15-16.
- E.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행함의 다섯째 항목은 우리가 영 안에서 충만해져 그리스도를 넘쳐흐르게 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 엡 5:18.
1. 말하고, 노래하고, 시를 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은 영 안에 충만한 것의 흘러 나감일 뿐 아니라 영 안에서 충만해지는 길이다 — 엡 5:19-21.
  2. 영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가득 채워져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스도의 넘쳐흐름이 되는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써 우리는 그분을 은혜 위에 은혜로 계속 받아들여 그분의 충만, 그분의 넘쳐흐름이 될 수 있다 — 엡 3:8, 1:23, 3:19하, 롬 10:12-13, 엡 6:17-18, 요 1:16.

#### IV.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 A.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우리의 맛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냄새를 바꾸기 원하신다. 성령의 징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수한 맛을 갖고 그리스도의 순수한 향기를 풍길 때까지 우리의 타고난 겉사람의 양금, 찌꺼기가 제거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 담으시는 것이다 — 램 48:11, 고후 2:14-15, 아 4:16, 왕하 4:8-9.
1. '모든 영의 아버지'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동참하도록' 시련과 징벌을 통해 우리를 징계하신다 — 히 12:4-13.
  2. 시련과 징벌을 한 번도 통과해 보지 않은 이들은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 담아진 적이 없다. 그러므로 그들의 타고난 기질과 겉사람과 자아의 양금, 찌꺼기, 침전물의 맛이 그들 안에 남아 있고, 그들의 냄새도 변하지 않았다 — 램 48:11, 롬 8:28-29, 아 4:16.
- B. 마리아는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일 리트라로 채워진 옥합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주님께 부었을 때, '그 집이 향유의 향기로 가득 찼다' — 요 12:2-3, 막 14:3, 비교 아 1:12.
- C. 옥합은 우리의 겉사람을 상징한다. 우리의 겉사람은 속사람이 뚫고 나올 수 있도록 파쇄되어야 한다. 주님은 질그릇, 옥합, 걸껍질을 파쇄하시려고 매우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위에 일하신다 — 고후 4:7, 요 12:3, 24, 롬 8:28-29.
- D. 우리의 선천적인 어떠함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오직 그 영께서 우리 존재 안으로 조성하신 것만이 가치가 있다. 성령의 징계는 우리의 타고난 기질과 습관을 깨뜨리고, 성숙하고 달콤한 성령의 조성을 이끌어 온다. 하나님은 우리 환경 안의 모든 것을 안배하심으로써 우리의 타고난 존재를 허물어뜨리시어, 우리 안에 새로운 기질과 새로운 성격과 새로운 속성들을 형성하신다 — 요 3:6, 고후 5:17, 갈 6:15.

E. 파쇄되지 않는 두 가지 주된 이유가 있다.

1. 어떤 사람이 파쇄되지 않는 것은 그가 어둠 속에 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서 모든 잘못을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에 돌린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대한 계시가 없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루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계시가 없다 — 비교 욥 10:13, 엡 3:9.
2. 어떤 사람이 파쇄되지 않는 것은 그가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자기 사랑을 제해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 모든 오해와 불만은 오직 한 가지, 곧 은밀한 자기 사랑에서 생긴다.

F. 우리는 자신이 통과하는 모든 일에 오직 한 가지 목적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해방되고 우리 안에서 표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속사람이 해방되고 표현될 수 있는 정도까지 우리 겉사람이 파쇄되기를 바란다. 이것은 보배로운 것이며, 이것이 주님의 종들이 가야 할 길이다 — 요 12:24-26, 고후 4:12.

### 영의 해방과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겉사람이 파쇄되는 것에 관한 교통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아야 한다. 내가 아주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은 우리가 죄인들과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과 함께함으로써 그들 안에 의(義)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생겨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나가서 사역할 때 반드시 사람들 안에 배고픔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안에 반드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선함과 능력과 자양분과 공급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여러분이 사람들과 함께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 여러분과 이야기할 때,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고 싶은 느낌이 생겨나야 한다. 만일 다른 사람이 늘 여러분과 만나고 여러분과 왕래하는데, 여러분이 그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생기게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실패이다. 설령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파할지라도 사람들 안에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의 일은 실패이다. (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42권, 특별 집회, 메시지 및 대화 기록(2), 31장, 24-25쪽)

열왕기하 4장에서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영접한 일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곳에 사는 한 부유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식사를 대접하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엘리사는 지나갈 때마다 거기 들러 식사를 하곤 하였다. 그 여인이 남편에게 말하였다. ‘늘 우리를 거쳐 지나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나는 이제 압니다.’”(8-9절)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갈 때, 그는 한 편의 메시지를 전한 적도 없고 기적을 행한 적도 없었다. 엘리사는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들어가 음식을 먹었다. 그 여인은 그가 음식 먹는 방식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엘리사가 사람들에게 준 인상이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준 인상이 무엇이고 우리에게서 나간 것이 무엇인지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언급했다.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을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는 인상은 오직 우리 겉사람뿐일 것이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거나, 찌르고 강박하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할 것이다. 혹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총명한 사람이거나 구변이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줄 것이다. 혹은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소위 좋은 인상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상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인상이 교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것만으로 만족하실 수 없고, 교회도 이러한 소위 좋은 인상은 필요하지 않다.

... 만일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영은 해방될 수 없고 사람들에게 영의 인상을 줄 수도 없다.

... 사람들 안에 인상을 남겨 주는 것은 바로 우리 존재에서 가장 강한 부분이다. (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54권,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8장, 296-297쪽)

메시지 2  
접붙여진 생명

성경: 요 15:1, 4-5, 롬 11:17-24, 고전 6:17

- I.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접붙여진 생명을 살아야 하는데, 이 생명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고 주님과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산다 — 고전 6:17, 요 15:4.
- II.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기를 갈망하시는 관계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임을 계시한다 — 고전 6:17.
- A. 하나님은 신성한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함께 결합되어 한 생명이 되기를 갈망하신다 — 요 15:1, 4-5.
  - B. 이러한 하나가 유기적인 연결 혹은 생명 안에서의 연결, 곧 접붙여진 생명이다.
  - C. 신성한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하나로 접붙여졌다는 관념은 비밀스럽고, 천연적인 관념을 뛰어넘으며, 사람의 생각에 낯선 것이다.
- III. 접붙여짐으로써 유사한 두 생명은 결합되어 함께 자란다 — 롬 11:17-24.
- A. 접붙임은 접붙일 생명들이 유사한 경우에만 효과가 있다.
  - B. 우리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성한 생명과 결합될 수 있다.
  - C. 우리 사람의 생명은 신성한 생명을 닮았다. 그러므로 신성한 생명과 사람의 생명은 함께 접붙여져 유기적으로 함께 자랄 수 있다.
- IV.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지려면 그분께서 육체 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의 과정을 통과하셔야 했다.
- A. 그리스도는 육체가 되심으로 다윗의 씨, 다윗의 가지, 순이 되시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접붙여질 수 있도록 하셨다. 그분은 그분과 우리가 함께 접붙여질 수 있도록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 — 요 1:14, 마 1:1, 눅 3:8, 렘 23:5, 33:15.
  - B.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 안으로 접붙여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잘리셨다'.
    - 1.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가지가 되신 것 자체로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접붙여지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2. 접붙여지려면 잘리는 것이 필요하다. 즉 두 가지가 모두 잘리지 않는다면, 이 두 가지는 함께 접붙여질 수 없다.
      - a.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잘리셨다.
      - b.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 잘렸다.
    - 3. 잘리는 일이 생긴 후, 결합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접붙임 안에서 우리는 잘리고, 결합되며,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 C.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잘리신 후에 부활하시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 고전 15:45하, 고후 3:17상.
    - 1. 그러한 영이 되심으로써 그리스도는 접붙여질 준비가 되셨다.
    - 2. 일단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분은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심으로 신성한 생명을 우리 안으로 가져오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접붙여진다 — 요 20:22, 롬 8:11.
      - a. 이 생명은 죽음과 부활의 생명이다.
      - b.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에 이르는 열쇠를 우리 믿는 이들 안으로 가져오심으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고 살아나게 하신다 — 갈 2:20.

c. 이러한 죽음과 부활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접붙여진다.

V. 거듭난 이들로서 우리는 접붙여진 생명, 곧 양편이 결합되어 유기적으로 자라는 생명을 살아야 한다 — 요 15:1, 4-5.

- A.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진 후에 더 이상 우리 자신에 의해 살지 말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 갈 2:20.
- B.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육체에 의해서나 우리의 타고난 존재에 의해 살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 우리는 우리의 거듭난 영, 곧 그리스도와 접붙여진 영에 의해 살아야 한다 — 롬 8:4.
- C. 이러한 접붙임을 통해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 롬 12:4-5.

VI. 접붙여진 생명은 교환된 생명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신성한 생명의 연합이다 — 갈 2:20.

- A. 교환된 생명이라는 관념은 우리가 우리 사람의 생명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그분의 신성한 생명으로 대체하신다는 것이다.
- B.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교환된 생명이 아니라 접붙여진 생명, 곧 사람의 생명과 신성한 생명이 연합된 것이다 — 롬 6:3-5, 요 15:1, 4-5.
  - 1. 생명을 교환하거나 거래한 것이 아니다.
  - 2. 교환된 것이 아니라 신성한 생명이 사람의 생명 안으로 분배되고 주입된 것이며, 신성한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연합된 것이다.
- C. 그리스도인의 체험에서 가장 놀라운 실재는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이 생명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 고전 6:17.
  - 1. 그리스도의 온 존재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한 가지를 위한 것인데, 바로 그분과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접붙여진 생명을 사는 것이다 — 요 15:4-5.
  - 2. 주님의 회복 안에서 그분은 접붙여진 생명이라는 소홀히 여겨졌던 이 문제를 회복하고 계신다.

VII. 접붙여진 생명 안에서 사람의 생명은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생명에 의해 강화되고 높아지고 풍성하게 된다 — 롬 11:17-24.

- A. 접붙여진 생명 안에서 가지는 그 본질적인 특성을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지만, 더 좋은 생명 안으로 접붙여짐으로써 그 가지의 생명이 높아지고 변화된다.
  - 1. 더 높은 생명이 더 낮은 생명을 정복한다.
  - 2. 더 높은 생명이 더 낮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높이고 변화시킨다.
- B. 접붙여진 생명 안에서 신성한 생명은 우리 안에서 운행하여 부정적인 요소들을 배출한다 — 고후 3:18.
  - 1. 신성한 생명은 점진적인 방식으로 운행하면서 타고난 모든 것을 제거한다.
  - 2. 우리의 기질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가 죽음당한 다음, 주님은 우리의 기질을 내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높이시고 사용하신다.
- C. 접붙여진 생명 안에서 신성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것을 부활하게 한다 — 요 11:25.
  - 1. 하나님은 그분께서 창조하신 것을 버리지 않고 되찾으신다.
  - 2.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존재의 모든 방면을 부활 안으로 이끄시는 것이다 — 빌 3:11.
    - a. 신성한 생명이 부정적인 것들을 배출하는 동안, 이 신성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것을 부활시키려고 운행한다.
    - b.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본래 기능들, 곧 창조 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능들이 복원되고 강화되며 풍성하게 된다 — 갈 2:20.

- D. 접붙여진 생명 안에서 신성한 생명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의 속부분들에 공급한다 — 롬 12:2.
  - 1. 우리의 부활하고 높아진 기능들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공급받는다.
  - 2. 이러한 공급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새로워진다.
- E. 접붙여진 생명 안에서 신성한 생명은 우리의 전 존재를 적신다 — 롬 8:29-30.
  - 1. 그리스도의 풍성은 우리를 적시고 우리를 변화시킨다 — 롬 12:2, 고후 3:18.
  - 2. 이렇게 신성한 생명으로 적셔짐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된다 — 롬 8:29.



메시지 3

바르는 거룩한 기름인 복합된 관유의 내재적인 의미와 계시 —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복합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의 완전한 예표

성경: 출 30:22-30, 고전 15:45하, 요 7:37-39, 빌 1:19

- I. 바르는 거룩한 기름은 ‘향 만드는 사람의 제조법에 따라’ 올리브기름과 네 가지 향료로 만들어진 복합된 관유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복합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생명 주시는 영의 완전한 예표이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러한 영이 되셨다 — 출 30:22-25, 고전 15:45하, 요 7:37-39, 빌 1:19.
- A. 이 복합된 바르는 기름의 성분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액체 몰약은 죽은 이를 장사할 때 사용되었으며(요 19:39),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죽음을 상징한다(롬 6:3).
    - a. 몰약은 또한 죽음의 고통을 경감하는 진통제로 사용되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동안에, 사람들은 그분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몰약 섞은 포도주를 그분께 드렸다 — 막 15:23.
    - b. 몰약은 또한 몸에서 어떤 좋지 않은 분비물이 나올 때 그러한 몸을 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우리의 인간 생명에는 좋지 않은 여러 분비물이 있지만,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죽음은 이 문제를 고친다.
  2. 향기로운 육계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달콤함과 효능을 상징한다 — 롬 8:13.
    - a. 육계는 약한 심장을 자극하기 위한 약으로 처방되었다.
    - b. 우리가 그 영 안에서 주님의 죽음을 우리의 내적 존재에 적용할 때, 우리의 심장 곧 우리의 마음은 자극을 받아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된다 — 빌 4:4, 느 8:10.
  3. 향기로운 창포는 높이나 진흙에서 위를 향해 자라는 일종의 갈대에서 얻어지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부활을 상징한다 — 엡 2:6, 골 3:1, 벧전 1:3.
  4. 계피는 고대에 곤충과 뱀을 쫓는 데에 사용되었으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쫓아내는 능력을 상징한다. 계피는 모든 악한 ‘곤충들’을 쫓아내며, 특별히 옛 뱀 마귀를 쫓아낸다 — 빌 3:10.
  5. 올리브기름은 복합된 관유의 주성분으로서, 복합되신 영의 주성분이신 하나님의 영을 상징한다 — 창 1:2.
- B. 숫자 4는 피조물을 상징하는데(겔 1:5), 이 피조물의 머리가 사람이다(창 1:26). 숫자 1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상징한다(신 4:35, 딤후 2:5). 그러므로 네 가지 향료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고, 올리브기름 한 힌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신성을 상징한다. 따라서 올리브기름과 네 가지 향료를 섞는 것은 복합되신 영 안에 하나님과 사람, 신성과 인성이 복합되고 연합된 것을 상징한다 — 레 2:4과 각주 2.
- C. 올리브기름과 네 가지 향료는 모두 눌러 짜거나 자르는 과정을 통해 준비되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들을 통해(마 26:36) 하나님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되신 것을 상징한다(롬 8:9).
- D. 더욱이 이 네 가지 향료는 오백 세겔의 온전한 단위 셋을 이루었고 가운데 오백 세겔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는데, 이것은 부활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과, 삼일성의 둘째이신 아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나누어지신 것’을 상징한다.
- E. 성경에서 5는 책임의 숫자이기 때문에(마 25:2과 각주 1), 복합된 관유의 다섯 가지 요소와 각각 오백 세겔로 이루어진 세 단위의 네 가지 향료는 책임을 지는 능력과 역량이신 부활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을 상징한다.

- F. 숫자 3과 5는 하나님의 건축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참조 창 6:15 각주 2), 복합된 관유에 있는 이 숫자들은 복합되신 영 안에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 G. 이러한 의미들에 근거할 때, 네 가지 향료와 올리브기름을 복합하여 바르는 기름을 만든 것은,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과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통해 연합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를 건축하기 위하여 복합되신 영을 산출하는 것을 상징한다.

**II. 복합된 관유인 바르는 거룩한 기름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 제단과 그 모든 집기, 물두명과 그 받침에,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바르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 모두를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하도록 거룩하게 하고 분별하였다 — 출 30:26-30, 벤전 1:2, 고전 6:11, 롬 15:16.**

- A. 이 관유는 삼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을 통해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시므로써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복합되신 영이 되시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에게 도달하시고 그분 자신을 그들에게 기름 바르시어, 그분 자신을 그들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들을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상징한다 — 요 20:22, 요일 2:20, 27, 고후 1:21, 고전 6:17.
- B. 이러한 기름바름은 복합되신 영께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는 것으로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모든 요소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또한 우리의 내적 존재에 더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신성한 생명 안에서 신성한 요소로 말미암아 자라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게 한다 — 골 2:19.
- C. 바르는 거룩한 기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거처와 제사장 체계에 바르기 위한 것이다(비교 벤전 2:5).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거처와 제사장 체계를 위하는 이들만이 복합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을 누릴 수 있다.

**III. 올리브기름으로 상징되시는 하나님의 영은 더 이상 단순한 기름이 아니시며, 이제는 어떤 성분들과 복합된 기름이다. 이것에 관해서 요한복음 7장 39절은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 A. 이것은 주님의 영광스럽게 되심, 곧 주님의 부활(눅 24:26) 이전에는 복합되신 영이 아직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러한 영의 복합 혹은 조합이 완성되었다.
- B. 그 영께서 하나님의 영이셨을 때는 신성한 요소만 갖고 계셨다.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신 후에, 그 영은 신성한 요소와 사람의 요소 모두와 함께,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의 모든 본질과 실재를 가지셨다.
- C. 바르는 거룩한 기름으로 예표되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복합되신 이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 곧 그리스도의 몸의 공급이시며, 이러한 공급에 의해 우리는 몸 안에서, 몸을 통하여, 몸을 위해 그리스도를 삶으로 그분을 확대할 수 있다 — 빌 1:19-21상.

**IV. 복합된 관유, 곧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께서 믿는 이들인 우리에게 기름 발라지셨다. 시편 133편 2절은 어떻게 바르는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려서 그의 수염을 거쳐 옷깃까지 미치지지를 묘사한다. 이것은 그 영께서 온몸에 기름 발라지시는 것을 상징한다.**

- A. 하나라는 터는 바로 바르는 거룩한 기름 곧 복합되신 영으로서 우리의 존재에 적용되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 자신이다 — 시 133:1-3.
- B. 관유로 ‘페인트칠’되기 위해서(요일 2:20, 27), 우리는 반드시 교회와 하나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르는 기름과 함께 그 모든 요소의 적용을 자연스럽게 누릴 것이다. 이 관유가 적용되어 산출된 이 하나는 얼마나 놀라운지!

## 메시지 4

### 참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함

성경: 요 15:1, 4-5, 7, 요일 2:6, 27-28, 3:24, 4:13, 15, 롬 8:4

#### I. 주 예수님은 “나는 참포도나무요”라고 말씀하셨다 — 요 15:1상, 비교 계 14:18.

- A. 가지들(아들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이 있는 이 참포도나무(아들)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이다.
- B. 이 유기체는 그분의 풍성으로 자라며, 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표현한다.

#### II. 포도나무 안에 있는 가지들로서 우리는 포도나무 안에 거해야 한다 — 요 15:4-5.

- A.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연결의 문제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교통의 문제이다 — 고전 1:9, 30.
- B.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포도나무 안에 있는 가지들이라는 분명한 이상을 보는 것에 달려 있다. 일단 자신이 포도나무 안에 있는 가지들이라는 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우리와 주님 사이의 교통을 유지해야 한다 — 요 15:2.
- C.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다 — 요일 2:6, 27-28, 3:24, 4:13, 15.
- D.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조건이다 — 요 15:5상.
- E. 우리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 요 15:5하.
- F. 가지들이 포도나무 안에 거할 때에만, 포도나무가 가지들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 III.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한 기름바름의 내적 가르침에 주의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한다 — 요일 2:27.

- A. 우리는 주님의 피의 씻음을 체험하고 기름 바르시는 영을 우리의 내적 존재에 적용함으로써 그리스도와의 신성한 교통 안에 거한다 — 요 15:4-5, 요일 1:5, 7, 2:20, 27.
- B.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기름부음 받으신 분이시자 기름 부으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로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분을 내적인 기름바름으로 누린다 — 히 1:9, 3:14, 고후 1:21-22.
- C. 기름바름은 우리 안에 계신 복합되신 영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바른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하나님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게 된다. 기름바름은 생명의 내적 감각, 내적 의식에 의해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생각을 그분의 지체들에게 전달해 준다 — 시 133편, 고전 2:16, 롬 8:6, 27.

#### IV.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과 한 영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연합된 영 안에 사는 것이다 — 고전 6:17.

- A. 신약의 본질은 하나로 함께 연합된 두 영, 곧 신성한 영과 사람의 영이다 — 고전 6:17, 롬 8:4.
- B. 이 두 영의 연결은 성경에서 가장 깊은 비밀이다.
- C. ‘한 영’이라는 표현은 그 영이신 주님과 우리 영의 연합을 가리킨다 — 고전 6:17.
  - 1. 영, 곧 우리의 영과 주님의 영이 한 영으로 연합된 이 영은 주님의 영이자 우리의 영이다 — 롬 8:4, 고후 3:17, 고전 15:45.
  - 2.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는 것, 주님께 기도하는 것,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 등 우리의 모든 영적 체험은 이 연합된 영 안에 있다.
- D.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은 연합된 영, 곧 신성한 영과 사람의 영이 연합된 영이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초점과 관련된다 — 엡 3:5, 9, 1:17, 2:22, 5:18, 6:18.
  - 1.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 됨으로써, 모든 것을 포함한 분이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다 — 고전 1:2, 24, 30, 2:7-8, 10, 3:11, 5:7-8, 10:3-4, 11:3, 12:12, 15:20, 23, 45, 47.
  - 2.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취할 수 있다.
  - 3. 누구든지 주님과 한 영인 사람에게에는 공급이 한량없다.

- E. 연합된 영은 하나님과 한 영이고,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영이다 — 요일 5:11, 벧후 1:4.
1. 신성한 영과 사람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사람의 생명, 곧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이며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인 생명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갈 2:20, 빌 1:19-21상.
  2. 하나님-사람의 생활은 두 영이 하나로 함께 연결되고 연합된 생활이다.
- F. 주님과 한 영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그분이 생명 안에서 하나인 것을 함축한다 — 요 3:16, 요일 5:12.
- G.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오늘날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내주시고 우리의 영과 연합되신 그 영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 고후 3:17, 고전 15:45, 6:17.
- H. 성경은 우리에게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할 것을 요구한다 — 롬 8:4.
1. 모든 것에 대한 열쇠는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시고 우리의 영과 한 영이 되신 놀라우신 영 안에서 발견된다.
  2. 영 안에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 존재에 침투하심으로써 우리를 통해 표현되실 때까지 우리를 채우시고 적시시도록 해 드리는 것이다 — 엡 3:17.
  3.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상호 거함은 주님과 한 영인 것을 실행하는 것이다.

**V. 효과적인 기도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 결과이다 — 요 15:7.**

- A.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과 협력하고 동역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그분 자신을 표현하시어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협력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자신 안에서부터 그리고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과 그분의 갈망을 표현하시도록 허락해 드릴 것이다 — 롬 8:26-27, 약 5:17.
1. 기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흐름이며, 사람과 하나님의 상호 접촉이다.
  2. 기도의 참된 의미는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 자신을 흡수하는 것이다 — 엡 6:18.
  3.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사는 길은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이다 — 골 1:27, 3:4, 빌 1:20-21상.
  4. 우리에게서 우리를 주님과 접촉 안으로 이끄는 그러한 기도, 곧 우리를 우리 영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되게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 딤후 4:22, 고전 6:17.
- B.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는 그분의 말씀에서 나온 갈망이 있을 것이다 — 요 15:7, 요일 5:14-15.
1. 우리는 주님의 느낌을 만지고 그분의 의도를 이해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그분의 갈망을 가질 것이다.
  2. 그분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될 것이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일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갈망에 따라 기도할 것이다.
  3. 주님은 이러한 종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 데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VI.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교회생활을 할 수 있다 — 요 15:4-5, 고전 1:2, 9, 30, 12:27.**

- A. 우리는 연합된 영 안에서 사는 것에 의해서만 진정한 교회생활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교회생활을 위해 이 연합된 영 안에 머물러야 한다 — 고전 1:2, 12:27.
- B. 교회생활은 서로 사랑하는 생활이다 — 요 15:12, 17.
- C.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함께 가지들이 된 이들 사이의 놀라운 교통에 참여한다 — 요 15:4-5, 요일 1:3-7.

메시지 5

하나님의 장엄한 집에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장엄한 집을 위한,  
생명의 사역이 수반되는 생명의 흐름을 누리므로써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함

성경: 겔 47:1-12, 고후 3:6, 고전 9:11, 3:6, 9, 4:15, 3:2, 12

- I.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나오는 생명의 흐름을 누리야 한다 — 겔 47:1-12.
- A. 하나님의 궁극적인 움직임은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하나님의 온 존재로 사람을 적심으로써 생명과 본성과 요소와 본질에 있어서 사람을 신화(神化)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서 움직이시는 것이다 — 고후 3:18, 요일 3:2.
- B. 물은 문지방 아래에서 흘러나온다 — 겔 47:1.
1. 물이 흐르려면 반드시 문지방, 곧 출구가 있어야 한다 — 비교 시 81:10.
  2.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 많이 접촉한다면, 교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는 출구가 있을 것이다 — 영한 동번 찬송가 846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614장).
- C. 흐름은 동쪽을 향한다 — 겔 47:1.
1. 하나님의 강은 하나님의 영광의 방향으로 흐른다 — 비교 민 2:3, 겔 43:2.
  2. 교회 안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주의한다면, 생수가 교회로부터 흘러나올 것이다 — 요 7:18, 고전 10:31.
- D. 물은 집의 오른쪽에서 흘러나온다 — 겔 47:1.
1. 성경에서 오른쪽은 가장 높은 위치, 곧 첫째 위치이다 — 비교 히 1:3.
  2. 생명의 흐름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으뜸의 위치를 가져 우리의 생활과 일에서 통제하는 요인이 되어야 한다 — 계 22:1, 골 1:18하.
- E. 물은 계단 옆으로 흐르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명의 흐름을 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처리와 완전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 겔 47:1.
- F. 생명의 흐름을 증가시키기 위해, 우리는 늦의 사람이신 주님께 측량을 받아야 한다 — 겔 40:3, 47:2-5, 계 1:15, 비교 요 7:37-39.
1. 측량하는 것은 시험하고 점검하고 심판하고 점유하는 것이다. 완전한 단위인 천 규빗(비교 시 84:10)을 네 번 측량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 온 존재를 차지하시고 철저히 점유하시도록, 피조물인 우리가 주님께 철저하게 측량받아야 함을 가리킨다(사 6:1-8).
  2.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점검하시고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점유하시게 허락해 드릴수록, 흐름은 더욱더 깊어진다. 흐름의 깊이는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측량받았는가에 달려 있다 — 비교 요일 1:5, 7.
  3. 주님께 더 많이 측량받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생명의 은혜의 흐름에 규제받고 제한받으며, 결국에는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 안에 완전히 잠기게 되고,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에 의해 떠밀려 갈 것이다.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안에서 헤엄치는 강이 되신다. 우리는 한 면으로 우리의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참으로 자유롭다 — 겔 47:4-6.
- G. 강은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한다. 강의 흐름은 나무들과 물고기와 가축을 산출한다 — 겔 47:7, 9-10, 12.
- H. 강은 건조하고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죽음의 물을 치료한다. 이렇게 물을 주고 치료하는 목적은 생명을 산출하는 것이다 — 겔 47:8.
1. 강은 늪과 습지를 치료할 수 없다. 늪 혹은 습지는 중립 지대, 중간 지대, 타협과 미지근함의 지대이다 — 겔 47:11, 비교 계 3:15-16.
  2. 생명의 흐름과 교회생활을 위해 주 예수님은 우리가 절대적이기를 원하시고 또 요구하신다. 절대적이 될 때 우리는 흐름 안에 있을 것이고, 이 흐름은 졸졸 흐르는 작은 시내가 아니라 우리가 헤엄칠 수 있는 강이 될 것이다. 그럴 때 강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 II. 우리가 생명의 흐름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유기적인 건축물인 하나님의 장엄한 집을 위해, 생명의 사역을 가진 씨 뿌리는 이, 심는 이, 물 주는 이, 낡는 이, 먹이는 이, 건축하는 이가 되기 위한 것이다 — 고후 3:6.
- A. 생명의 사역자는 영적인 씨를 뿌리는 씨 뿌리는 이이다.
1.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들을 심었다면”이라고 말한다.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씨를 가리킨다.
  2. 씨는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이며, 영적인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의 영에서부터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주 예수님은 씨 뿌리는 분으로 오셔서 생명의 씨이신 그분 자신을 인류 안으로 뿌리셨다 — 마 13:3, 37.
  3. 주님의 회복 안에서 새 언약의 사역자들인 우리는 씨 뿌리는 이로서 생명을 나누어 주어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고 산출해야 한다.
- B. 생명의 사역자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백성 안에 심어 주는 심는 이이다 — 고전 3:6.
1.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새 창조물에 속한 하나님의 경작지, 곧 하나님의 농장이다 — 고전 3:9.
  2.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 안에 심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참되게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 C. 생명의 사역자는 그리스도로 사람들을 적셔 주는 물 주는 이이다.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안에 심으면, 생명수로 그들을 적셔 주어야 한다 — 고전 3:6.
1. 우리는 하나님의 농장에서 물 주는 이를, 농장에 물을 공급하는 저수지가 있는 관개 시설에 비유할 수 있다. 우리는 생수가 저장된 저수지를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신성한 ‘관개 시설’이 되어, 하나님의 농장인 교회에 물을 주어야 한다.
  2. 우리는 생명수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체험을 가져야 하고 그분을 살아 있는 방식으로 접촉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생수의 통로, 곧 신성한 관개 시설이 되어 생명수를 다른 이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 — 요 4:14, 7:37-39.
- D. 생명의 사역자는 낡는 이인 아버지로서 자신이 낡은 자녀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준다 — 고전 4:15.
1. 낡는 것은 생명을 나누어 줌으로써 영적인 자녀들을 산출하고 생산하는 것이다.
  2. 우리는 신성한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낡을 수 있도록 신성한 ‘생명 배아’를 가져야 한다.
- E. 생명의 사역자는 먹이는 이이다. 먹이는 것은 생명의 문제이다. 이것은 지식의 문제인 가르치는 것과 다르다.
1. 마실 젖이나 먹을 음식을 주는 것이 다른 이들을 먹이는 것이다(고전 3:2). 사도가 고린도의 믿는 이들에게 공급한 것은 젖이었고, 그것은 분명 그들에게 영양분을 주었을 것이다.
  2. 사도들의 건전한 가르침은 생명 공급이 되는 건강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을 양육하거나 치료한다 — 딤후 1:10하, 6:3, 딤후 1:13, 딤후 1:9.
- F. 생명의 사역자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하는 건축자이다.
1. 금은 신성한 본성을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고, 은은 구속의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보석은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그 영을 상징한다(이것은 인간 본성을 상징하는 나무와 육체 안의 사람을 상징하는 풀과 생명이 없는 것을 상징하는 짚과 반대된다) — 고전 3:12.
  2. 아가(雅歌)는 합당한 교회생활 안에서 온전하게 된 믿는 이들이 변화시키는 영과 동역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추구하는 이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을 묘사한다. 온전하게 된 믿는 이들은 추구하는 이들에게 삼일 하나님을 공급하여 그들이 변화되도록 해 준다. 이러한 변화는 삼일 하나님의 속성들이 그들 안으로 일해 넣어져 그들의 미덕들이 됴으로써 이루어진다 — 아 1:10-11.
  3. 이것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를 건축하여 새 예루살렘을 완결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 고전 3:12, 계 21:18-21.

메시지 6

그리스도 안의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심

성경: 고후 4:4, 6-7, 3:18, 마 17:2, 엡 5:8-9, 계 22:4상, 5하, 21:23

- I. “그들 안에서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눈멀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고후 4:4.
- A. 이 시대의 신인 사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을 눈멀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들의 마음속에 비치지 못하게 하였다.
1. 눈멀거나 너울로 가려진 이들은 자신이 어떤 것도 경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의 신은 사탄이다.
  2. 무신론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사탄을 숭배하고 있다.
  3.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시대의 신에 의해 눈멀어 있다.
- B.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마음속을 밝게 하고 빛나게 하고 빛 비추는 그분의 영광의 복음이다 — 히 1:3, 고후 4:6.
- C.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 딤후 1:11.
- D.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춘다. 이 영광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가운데 찬송을 받으신다 — 히 1:3, 엡 1:3, 6, 12, 14.
- II.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 고후 4:6.
- A.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시는 것으로 귀결된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해주는 빛 비춤으로 귀결된다 — 고후 4:4, 6.
- B.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사랑스러운 한 인격이고, 이 인격의 얼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고후 4:4, 6, 마 17:2.
- C.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표현되신 영광의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 행 7:2, 히 1:3.
- D.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더 비추실수록,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더 빛을 비출 것이다. 그럴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을 표현하시고 나타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된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은 먼저 우리 속으로 비취 들어오고, 그런 다음 우리 속에서부터 비취 나간다 — 요 1:18, 마 5:16, 빌 2:15.
- III.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 고후 4:7.
- A.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치는 것을 통해, 믿는 이들은 탁월한 보배이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시자 표현이신 그리스도의 빛나는 실재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다 — 고후 4:6-7.
1.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비추시는 것 곧 분배하시는 것은 우리 안으로 보배, 곧 모든 것을 포함

하신 그리스도를 가져온다.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시다 — 고후 4:4, 6-7, 골 2:9, 3:4, 11, 고전 15:45하.

2. 지극히 귀한 이 보배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이며, 이분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공급의 신성한 근원이시다 — 빌 4:13, 고후 13:5, 4:7.

B. 지극히 귀한 이 보배로 말미암아 질그릇들이 우리가 지극히 귀한 사역을 하는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었다. 이러한 일은 부활 안에 있는 신성한 능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탁월한 능력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 고후 3:6, 1:9, 4:7.

C. 우리의 비춤을 통해 영광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소중한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그들 안으로 분배 받아 소유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처럼 그들도 지극히 귀한 이 보배를 담는 질그릇이 될 것이다 — 고후 4:4, 6-7.

IV.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 고후 3:18.

A.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주님을 보는 것이다. 주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B. 주님의 영광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분 자신과 그분이 성취하시고 도달하시고 획득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실재가 되게 하신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되고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이런 식으로 그분은 우리를 그분과 똑같이 만들고 계신다 — 눅 24:46, 히 2:9, 고후 3:18, 롬 8:29.

C. 이것은 부활 안에 있는 생명 안에서 계속되는 과정이다 — 고후 3:18.

V.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십시오.” — 엡 5:8.

A.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다 — 요일 1:5, 엡 5:8, 요 12:36.

B.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뿐 아니라 빛 자체이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빛이다 — 마 5:14, 요일 1:5.

C. 빛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옳고 그름의 영역 밖에 있다 — 요일 1:7.

D. 우리가 빛의 자녀들답게 행한다면, 에베소서 5장 9절에 묘사된 열매를 맺을 것이다.

1.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실재로 표현되실 수 있도록, 빛의 열매는 본성에서 선해야 하고 절차에서 의로워야 하며 표현에서 참되어야 한다.

2. 선과 의와 참된 것 안에 있는 빛의 열매는 삼일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a. 선(善)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빛의 열매의 본성이시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선은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킨다 — 마 19:17.

b. 의는 아들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절차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러 오셨기 때문이다 — 롬 5:17-18, 21.

c. 빛의 열매의 표현인 참된 것은 영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왜냐하면 그분께서 실재의 영이시기 때문이다 — 요 14:17, 16:13.

VI.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 계 22:4상, 5하.

A. 하나님과 어린양의 얼굴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이 영원 안에서 누리게 될 삼일 하나님의 축복일 것이다 — 계 22:4상.

B. 어린양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에게 빛 비추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비추심 아래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 계 22:5하, 21:23.